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실용 한국어 중급’ 교재 분석

김소영

(소피아대학교)

soyoungbulgaria@hanmail.net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extbook ‘Practical Korean for intermediate level Bulgarian learners’. The language textbooks are a key element which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language education. The Korean language is far more different than any Slavic languages. So Korean language textbook developers for native speakers of Slavic languages must keep in m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and the demands of the learner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esent a direction of develop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those learners from Central and East Europe. The author has looked into the whol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Korean Language textbook (intermediate level) for Bulgarian speakers. (So Young Kim)

1. 머리말

소피아대학교의 한국학 전공은 1995년에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한국학 전공은 일본학전공, 중국학 전공, 터키학과, 아랍어과 등과 함께 동양어문화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학전공은 타과에 비해 교육과정, 학과 운영, 교수 및 대학원생의 학술 연구 활동, 교육 환경 면에서 월등이 앞서 가고 있다. 매년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문학적 지식을 겨루는 말하기대회와 독후감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학 관련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조직하여 소피아대학교 교수와 다른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소피아대학교의 한국학과는 소피아대학교의 다른 외국어학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당 14시간,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주당 12시간씩 '실용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석사 과정생의 '실용 한국어' 강좌도 주당 8시간이나 된다. 하지만 '실용한국어' 강좌의 중요성에 비해서 불가리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로는 한국어 초급과 중급, 2권밖에 없어서 한국어 수업에는 이 교재들과 함께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과서를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과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교재개발이 필수적이다. 교육은 교재가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 없는 수업은 상상하기 어렵고, 수업에서 교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과는 다른 교재와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피아대학교에서 2006년에 개발된 '실용한국어' 중급교재를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불가리아어권이나 동유럽권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한국어 교육 자료의 실태 및 개발 방향

2.1. 한국어 교육 자료의 실태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와 '실용 한국어' 강좌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와 경희대학교 '한국어'를 주 교재로 쓰고, 듣기 교재로 Exciting Korean 초급과 중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들과 함께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해서 개발된 교재 '실용 한국어' 초급과 중급이 1학년과 2학년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한국어' 초급은 전체 12과로 되어 있고, 단원 구성은 본문 대화, 새 단어, 기본문형, 유형연습, 연습문제, 읽기, 새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대화는 불가리아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문법도 불가리아어로 설명되어 있다. 본문 대화는 불가리아인 아센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말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엮어서 재미있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를 끌 삽화가 없고, 문법 위주의 문형 반복 연습이 지루하고 되풀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재와 함께 비디오, 사진, 신문, 잡지, 노래 등의 다양한 매체들도 한국어 보조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시청각 자료이지만 이곳에서는 대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접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한국 문화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시청각 매체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고, '살아 있는' 구어체 한국어를 재미있게 듣고 배울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으므로 아주 훌륭한 교재이다.

4학년 때는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교재 외에 한국과 불가리아의 최신 신문 기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번역, 토론 수업은 불가리아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교수와 한국학을 전공한 불가리아인 교수가 지도를 하는데,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 번역하거나 현재 사회의 큰 이슈를 뽑아서 찬성, 반대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거나 자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2.2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교과서

2.2.1.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불가리아어는 언어 구조가 한국어와 판이하게 다르고, 양국 간의 문화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불가리아인에게 한국어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 중의 하나이다. 불가리아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다른 유럽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세 배, 네 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과 문법 구조 등에 불가리아어와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불가리아인이 모국어의 특성과 연관해서 자주 범하는 오류 현상을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된 많은 교재들은 한국에서 매일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은 한국인과 접촉이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최근 교재들은 의사소통능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불가리아 학습자의 경우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위주의 구조주의적 교수법에 익숙해져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불가리아인 강사가 의사소통위주의 교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거친 후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중급 교재는 불가리아어의 특성, 학습자 요구,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구조주의적 교수법에 기준하여 개발되었다.

2.2.2. 불가리아 학습자의 요구 분석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 책의 집필에 앞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 대상자

는 소피아대학교의 ‘한국학 전공’ 2, 3, 4학년 학생이었고 설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정보

성별, 나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졸업 후의 진로는? (대학원 진학, 취업 등)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가? (영어, 러시아어, 불어, 독일어 등)

그 외국어를 몇 년 동안 배웠는가?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한가?

어떤 교재로 몇 년 동안 배웠으며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② 한국어 교재

현재 어떤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교재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발될 한국어 교재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는가? (일상생활, 문화, 역사, 경제 등)

③ 한국어 학습

한국어를 배울 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한국어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는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조사 대상자의 나이는 20살에서 22살 사이이고 80% 이상이 여학생이었다. 불가리아에서는 8학년부터 특수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로 나뉘게 되는데 특수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색에 따라 언어, 수학, 미술, 무용, 미용,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여학생들은 주로 문과계통의 특수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남학생들은 수학, 과학 등 이공계 전문 고등학교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70에서 80%가 이런 외국어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5년 동안 외국어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주로 전통적 문법 위주의 언어교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도 문법 중심의 교재와 교수법을 선호한다. 문법-번역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울 때도 듣기와 말하기를 쓰기와 읽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한다. 그리고 조사, 연결어미, 수사, 준대법, 어순을 특히 어려운 문법 항목으로 꼽았다.

2.2.3. '실용한국어' 중급 교재의 구성 및 특성

이 교재는 불가리아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소피아에서 출판되었다. 집필자는 한국인 두 명으로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에서 불가리아어와 한국어 비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개설 당시부터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감수자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집필 과정에서 불가리아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교수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불가리아인 교수의 조언을 받았다.

이 책은 불가리아어권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 시 문법번역식 교수에 익숙해져 있음을 감안하여 문법을 위주로 구성되었고, 각 과마다 실제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런 한국어로 된 대화문을 구어체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한국어(중급)'은 전체 20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0과와 20과는 복습으로 앞에서 배운 문법 항목을 복습하고, 읽기와 번역 문제로 종합적인 과제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부록으로는 본문 번역과 정답이 있다. 각과는 본문-새 단어-문법-연습문제-읽기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단원 구성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6과

제목: 불가리아 말은 너무 어려워

본문 대화(불가리아어 번역은 책 뒷편에 실었다)

새 단어(불가리아어 번역)

문법(-아 죽겠다, -잖아, -아 지다, -ㄹ 불규칙 동사, -구나, -이랑, -자마자, -느라고, -는데:불가리아어 설명과 예문 제시)

읽기 1 세종대왕과 한글

지문, 어휘 및 내용확인

읽기 2 달과 탈

지문, 어휘 및 내용확인

교재의 특성

1) 등장인물을 고정시키고 전체 과의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본문 대화의 내용은 한국학과의 남학생과 불가리아에 유학 온 여학생의 만남을 재미있게 엮은 것으로 학습자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의 생활로 친근감과 호기심을 유도하였다.

2) 읽기 지문은 각 과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본문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더 쉽게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려고 불가리아인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과 관련된 지문을 실었다. 이런 내용들은

불가리아 학생들이 한국인을 만났을 때 대화 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쉽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내용도 첨가했으며 한국과 불가리아의 유사한 풍습과 음식 (예: 불가리아와 한국의 돌잡이 풍습, 김치와 불가리아의 신 양배추 절임 등)을 함께 한 과에 실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가리아 학생이 한국에 갔을 때의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느낌을 읽기 지문으로 실어 간접적으로 한국 생활과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3) 문법과 어휘는 불가리아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특히 불가리아어권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비슷한 문법형태들을 서로 묶어 비교하여 불가리아어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편안하다'와 '편리하다' 그리고 '이미', '벌써', '이제'는 불가리아어로 번역할 때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불가리아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혼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차이점을 불가리아어로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법형태 중에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을 대조, 비교하여 설명하여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으)려고'와 '-(으)러', '-거든'과 '-(으)면', '-기 때문에'와 '-아서', '-(으)니까' 등은 불가리아어로 번역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가리아인들은 이런 문형들을 사용할 때 자주 혼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형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불가리아인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 설명하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문은 되도록 실용적이고 쉬운 것으로 실었다.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 문법에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이나 단어로 예문을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고충을 이중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단원에서 쓴 표현이나 단어를 예문에서 다시 사용하여 어

휘를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4. '실용한국어' 중급 교재의 문제점

1) 교재 편집 및 인쇄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의 교수와 강사의 감수를 받아 불가리아에서 출판되었다. 불가리아는 인쇄 기술이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처럼 세련미가 없다. 그리고 저자가 수정과 편집한 후 한국어를 모르는 불가리아 편집 전문가가 불가리아 교과서를 기준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나 여백이 많이 부족하다. 자간과 행간, 그리고 상하좌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어학교재로서 메모할 공간이 부족하고,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어 학습자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국어 교재를 출판할 때 현지에서 출판하는 것과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한국에서 출판할 경우 교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지만 현지 출판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그리고 교재에 현지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 편집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오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현지에서 출판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교과서 기준에 맞추어서 인쇄되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더 친근감을 줄 수 있지만 불가리아처럼 출판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데서 오는 단점이 있다.

2) 삽화

이 책에는 각 과마다 대화와 관련된 삽화가 한 장씩 들어있다. 불가리아인에게 익숙한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한국학과 학생과 저자가 함께 그림을 그렸는데 삽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어수선했던 느낌을 준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그림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아서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읽기나 연습문제에도

삽화를 사용하였다면 더 재미있고 쉬운 교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한국어 교재로 사용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삽화 전문가가 아닌 한국학과와 관련이 있는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들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큰 친근감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3) 교재구성 및 어휘

요즘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교수요목이나 교재구성에 대한 설명이 책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교재구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학습자나 교사가 이 책의 내용을 일별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단원명, 주제, 기능, 어휘 및 문법, 문화 순으로 간단한 내용을 표기한다면 교사나 학습자가 교재에 맞추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 새로 나온 단어를 정리하여 불가리아 번역을 첨부한다면 학습자들이 더 수월하게 사전 없이도 이 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습문제

이 책은 워크북을 따로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배운 문법을 확인하는 정도의 연습문제가 실려 있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접촉이 적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이 많지 않은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워크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워크북을 개발한다면 학습효과를 몇 배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5) 읽기 지문

읽기 지문은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불가리아의 문화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실었지만 난이도가 높고 불가리아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0과까지는 읽기 지문을 빼고 본문과 문법

을 공부한 후 다시 1과로 돌아가서 읽기 지문을 번역하고 질문, 답변, 토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6) 듣기자료

교과서의 대화와 읽기 지문을 실은 CD가 있으면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학습자 혼자서 복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책은 재정상의 문제로 CD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인이 본문을 읽고 나서 ‘따라서 읽기’를 시키거나, 어학연습실에서 한국인 교수가 본문 대화 내용을 테이프에 녹음시켜 주고 학생들이 따라 읽고 자신들이 읽은 내용을 다시 듣고 발음을 교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불가리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듣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듣기’는 ‘발음연습’과 함께 읽기, 말하기, 쓰기와는 분리해서 독립된 교재로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3. 맺음말

언어를 배울 때 교재는 교육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한국인을 접하기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적합한 교재 선정은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지금까지 동유럽 지역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손에 꼽을 만큼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한국어교재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런 교재를 쓸 때는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더더욱 떨어지게 된다. 한국의 각 대학에서 개발된 교재들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하지만, 동유럽권처럼 한국인을 매일 접촉하기가 쉽지 않고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교육 효과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어와 비슷한 모국어를 가진 일본인과 한국어와는 발음, 어휘, 문법구조 등이 전혀 다른 슬라브어를 모국어로 가진 동유럽지역 학습자에게 동일한 책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교육효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 요구 조건 등을 잘 파악하고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에서 개발된 불가리아 학습자를 위한 '실용한국어' 중급교재의 특성과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을 검토해 보았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8),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KORECE 1-2-3.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14-3.
- 안재홍(2006),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개발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논문.
- 연재훈(2000), 영어권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교육 14-1.